



이희학(목원대)

### 1. 들어가는 말

다윗은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삼았다. 이것은 남쪽과 북쪽의 지파들을 통합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된 결정이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구분되는 중앙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완전한 무풍(無風)의 중립 지대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골짜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지형은 전쟁에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적합한 천혜(天惠)의 조건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자신감에 잘 함축되어 나타나 있다(삼하 5:6).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한 이후 행한 다윗의 첫 번째 조치는 이 도시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다(삼하 6:1-15). 법궤가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현존의 도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자 종교적인 경외심과 민족적 자의식의 원천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도 이 도성이 차지하고 있던 종교적 거룩성과 중심성은 잔존해 있었기에 북쪽 지역의 백성은 법궤의 도시로 순례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이다(왕상 12:26-27).<sup>1</sup>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은 훨씬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가 전(全) 이스라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렘 41:4-10).<sup>2</sup>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침입 때였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에 탔으며, 주위의 모든 성벽은 헐렸다(왕하 25:9-10). 하지만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린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포로민들의 마음속에 삶과 믿음의 고향으로 노래되었다(시 137:1-9).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였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은 한편으로 패망과 슬픔을 대표하는 단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의 단어가 된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중차대한 신앙적 의미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라는 차원에서 선포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는 이스라엘 회복의 신앙적 상징으

1 H.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1*, GAT 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2), 270.

2 P. Welten, "Kulthöhe und Jahwetempel," *ZDPV* 88(1972), 19-37.

로 간주된 것인데,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와 복구에 대해 느헤미야와 포로 후기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전통사적인 관점에서 상호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느헤미야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와 복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활동에 속한다.<sup>4</sup>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파괴와 회복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의 붕괴와 허물어졌던 성벽의 복구라는 주제로 선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חָרְבָה)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장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חָרְבָה) 성문은 불탔더라

4장 3절(3:35)<sup>5</sup>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חָרְבָה) 하더라

4장 7절(4:1)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בְּנוּ) 그 허물어진 틈(חָרְבָה)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3 '전통사적 관점'(Traditionsgeschichtliche Fragestellung)이란 어떤 정신사적이고 신학적인 또는 종교사적인 맥락들을 통해서 형성된 확정되고 각인된 단어와 주요 개념을 내지는 중심 개념들, 그리고 모티브들의 특징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14), 128.

4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제16권 4호(통권 38집)(2010년 12월), 33-53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중건 보도가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제22권 1호(통권 59집)(2016년 3월), 125-156.

5 개역개정 4장 3절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3장 35절이고, 개역개정 4장 7절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4장 1절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역개정의 구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בְּנוּ) 허물어진 틈(חָרְבָה)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붕괴를 나타내는 다섯 구절에서 모두 히브리어 동사 '무너지다'(חָרַב)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어는 원래 '벽에 틈을 만든다'를 의미한다.<sup>7</sup> 느헤미야 1장 3절의 '허물어지고'(חָרְבָה)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산산조각 찢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파괴는 대략 140년 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공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거주지인 수산 궁<sup>8</sup>에서 들었던 최근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sup>9</sup>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당시 사마리아 지역 행정 관리였던 르훔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음모와 반역을 고발한 상소문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사업과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스 4:7-23).<sup>10</sup>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불행에 대해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홉 번째 달인 기술르월에 들었는데(느 1:1), 예루살렘의 치욕 사건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

6 '도비야'를 후대 편집자의 손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6장 2절에는 도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열거된 다른 이름들과는 달리 그의 이름에만 전치사 '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 E. Y. Kutscher, "Two 'passive' constructions in Aramaic in the light of Persian," in: *Hebrew and Aramaic Studies*(Jerusalem: Magnes Press, 1977), 70-89.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참가했다(느 2:10,19; 4:7; 6:12,14)는 점에서 '도비야'를 후대의 첨가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적했던 산발랏과 도비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민경진,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제24권 2호(통권 68집)(2018년 6월), 37-61;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86(2013), 5-29.

7 J. Conrad, חָרַב, in: *TDOT* XII(2003), 104-114.

8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거주지는 무덤지 않은 날씨를 지닌 엑바타나(Ecbatana)였다. A. T. Olmstead,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Chicago: University Press, 1948), 352.

9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Waco, Texas: Word Books, 1985), 172.

10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4*(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36.

일 동안 슬퍼하였고 금식까지 할 정도였다(느 1:3-4).

느헤미야 2장 13절의 '무너졌고'(כָּרַעְתִּים)는 느헤미야가 밤에 시찰을 나가서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갈기갈기 갈라지고 심한 균열이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다.<sup>11</sup>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용정, 분문, 샘문, 왕의 못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지나갈 길이 없어 계곡을 따라 내려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갔다(2:13-15). 골짜기 문(Valley Gate)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야간 순찰의 출발 지점임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북서쪽 근처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2</sup> 느헤미야는 거기에서부터 용정(Dragon Spring)으로<sup>13</sup> 내려갔는데, 이 샘은 힌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문(Dung Gate)은 골짜기 문에서 1,000규빗(500m정도) 떨어져 있는데(느 3:13), 예루살렘의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문으로 도시의 남쪽 끝에 자리를 잡고 있다. 느헤미야는 옛 다윗 성의 서쪽 성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성벽과 성문을 시찰한 것이고, 다시 남쪽 끝에서 오른쪽 계곡을 따라 올라간 것이다.<sup>14</sup>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야는 돌로 복구된 성벽이 여우<sup>15</sup>에 의해 다시 허물어질 수 있다고 조롱과 비난을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느헤미야 4장 7절과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퇴락한 성벽이 완벽하게 복원된 상황을 진술할 때 '허물어진 틈'(רֵעָה)이 완전히 메꾸어졌다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느헤미야 4장 7절의 '중수되다'(תְּקַיְּם)

11 R. J. Saley, "The Date of Nehemiah Reconsidered," *Biblical and Near Eastern Studies. Essays in Honor of William Sanford LaSor*, ed. G. A. Tuttle(Grand Rapids: Eerdmans, 1978), 151-165; H. G. M. Williamson, "Nehemiah's Wall Revisited," *PEQ* 116(1984), 81-88.  
12 J. M. 마이어스 저,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에스라-느헤미야』(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186.  
13 'רֵעָה'(웨일 프네이)는 일반적으로 '...앞에서'라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용정 앞을 지나서 분문으로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רֵעָה'(웨일 프네이)와 '용정'을 동격으로 간주한다면, 느헤미야는 분문 근처의 용정으로 간 것이다. 참고. A. van Selms, "The Origin of the Name Tyropoeon in Jerusalem," *ZAW* 91(1979), 170-176.  
14 J. Blenkinsopp, *Ezra-Nehemiah*. Old Testament Library(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215.  
15 J. B. Bauer "Der 'Fuchs' Neh 3,35 ein Belagerungsturm?" *BZ N.F.* 19(1975), 97-98에 따르면, 여우는 실제로 상대국의 성벽을 허물어버리는 전쟁을 위한 공격 무기로 활용되었다.

는 상처의 치유를 의미하는데(사 58:8; 램 8:22; 30:17; 33:6), 상처가 치유되어 건강하게 되듯이 틈이 생기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치유되어 튼튼하고 건강한 성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sup>16</sup> 과거에 완전하게 갈라져 있던 성벽의 조각들이 이제는 완전히 채워졌다는 뜻이다. '무너지다'(רָעַע)와 반대의 의미를 가진 '중수하다'(תְּקַיְּם) 내지는 '건축하다'(בָּנָה)라는 동사를 활용하여 '성벽의 파괴'와 '성벽의 회복'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단어의 의도적인 사용을 통해 문학적인 대조법을 보이고 있다.

### 3. 제30이사야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와 복구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와 '성벽의 복구'라는 모티브는 포로 후기 예언 문헌에 속하는 제30이사야서에서도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면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 58:12; 60:10-11, 18; 61:4; 62:6-12; 64:9-11). 폐허는 옛 시대의 상징이고, 복구는 새 시대의 상징으로 선포되고 있다:

#### 1) 이사야 60장 10-11절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찾으나(תִּצְטָא)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תִּבְנֶינָה בְּחֵיטְּ וּבְחֵיטְּ יִבְנֶינָ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sup>17</sup>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이사야 60장 10-11절은 어두운 상황이 대 전환되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다

16 정춘식, 『에스라/느헤미야』, 281.  
17 마소라 본문은 강조형 능동태 완료인 תִּפְתָּח(우퍼트후)로 읽고 있다. 그러나 탈굴역, 70인역, 불가타, BHS는 모두 수동태 תִּפְתָּח(웨니푸트후)를 제안하고 있다.

고 선포하고 있는데, 구원의 묘시는 현재의 황폐한 상황을 미래의 희망적인 상황과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제3이사야는 시온 예루살렘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사 62:6-12).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사용되었던 ‘건축하다’(בָּנִי)라는 주요 단어를 활용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새로운 구원 상태를 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건축하다’(בָּנִי)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격을 의미하는 단어인 ‘치다’(כָּסַף)와 반대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완전한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계 쳐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10절)이 새롭게 건축되고 성문(11절)이 개방된다는 것은 파괴(과거)로부터 복구(미래)로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이사야 60장 10-11절은 느헤미야서 본문들과는 다른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헤미야서 본문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했던 자들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다(느 3:1-32).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는 세금을 내어야만 했고(느 5:4), 외국 상인들이 그들의 물건들을 성안으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문은 안식일 전날 굳게 닫아야만 했다(느 13:15-22). 그런데 이사야 60장 10-11절은 길고도 쓰라린 이스라엘의 종살이 경험이 끝나면서 상황이 대역전되어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sup>18</sup> 예루살렘 성문은 낮과 밤으로 열릴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의 부유함이 상시로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의 성벽은 ‘구원’이라 불리고, 성문은 ‘찬송’이라고 칭해질 것이다(사 60:18).

18 C.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19(Göttingen und Zürich: Vandenhoeck & Ruprecht, 1986), 286-287.

## 2) 이사야 62장 6-7절

-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19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בָּנִי יְרוּשָׁלַיִם)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7절은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의 회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과 언어 면에서 느헤미야 본문들과 어떤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6절은 예루살렘의 군사적 방어에 대한 고대적 관행을 담고 있는데, 파수꾼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밤과 낮에 성을 지키는 행위와 관련된다. 도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수가 필요한 법이다. 6절의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강한 회복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지속적인 안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בְּנֵי יְרוּשָׁלַיִם)은 다른 구절에서 ‘사관’(בְּנֵי יְרוּשָׁלַיִם)과 관련되고 있는데(삼하 8:16; 왕상 4:3; 사 36:3),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록하던 역할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야웨에게 기도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파수꾼’은 자신의 구역을 순회하며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자라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다.<sup>21</sup> ‘파수꾼’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의 강력한 목표는 오직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다(7절). ‘예루살렘을 세우다’(בָּנִי)는 느

19 제1쿰란 동굴의 이사야서(1QIsa)는 ‘계속’(בָּנִי)을 생략하였는데, ‘주야로’(לַיְלָה וּלְיוֹם)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미상의 강조라고 생각한다면 꼭 생략할 필요는 없다(70인역, 시리아역, 탈굼역, 불가타역).

20 R. N. Whybray, *Isaiah 40-66*(NCBC Grand Rapids: Eerdmans, 1975), 249.

21 J. D. W. Watts, *Isaiah 34-66*, WBC 25(Waco, Texas: Word Books, 1987), 313.

헤미야 6장 1절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다'(בָּנֶה)의 의미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의 외적인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의 공공질서가 혼란과 어두움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안과 질서로 전환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이사야 64장 9-11절

-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22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מְחֻלָּלָהּ מְחֻלָּלָהּ מְחֻלָּלָהּ)
-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다 **황폐하였나이다**(מְחֻלָּלָהּ מְחֻלָּלָהּ)

본문의 탄식 기도는 신학적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고 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시온 예루살렘과 벨엘이나 세겜과 같은 야웨의 임재와 관련된 여러 거룩한 성읍들의 황폐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의 황폐함은 기원전 587년의 사건과 관련되기보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예언자 스가랴와 학개에 의해 회복되었던 제2성전의 황폐함과 불에 탄 사건과 관련된다.<sup>23</sup>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예루살렘 회복의 촉구이다.

위 탄식 기도에서 10절의 '황폐함'(מְחֻלָּלָהּ)과 11절의 '황폐하다'(מְחֻלָּלָהּ מְחֻלָּלָהּ)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며, 사실상 느헤미

22 70인역은 “너의 거룩한 자의 성읍”(πόλις του ἁγίου σου)으로 번역하고 있다.  
23 J. D. W. Watts, *Isaiah 34-66*, 336; J. Morgenstern, “Is 63,7-14,” *HUCA* 23(1950), 187-203.

야 보도들과는 어떠한 특별한 언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파괴가 매우 특징적인 다른 단어들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10절의 '주의 거룩한 성읍'(מְחֻלָּלָהּ מְחֻלָּלָהּ)과 11절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מִקְדָּשׁוֹנוֹ מְחֻלָּלָהּ מְחֻלָּלָהּ)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대조되고 있다. '성읍'(מְחֻלָּלָהּ)에 '거룩한'(מְחֻלָּלָהּ)이 연결된 경우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두 번 언급되었다(느 11:1, 18).<sup>24</sup>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탄식은 이 장소가 국가 전체의 중심이며 국가의 복과 번영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sup>25</sup> 11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장소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찬양은 전통적인 성전예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조상들을 지칭한다. 11절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을 향한 절망적인 탄식으로 끝맺고 있는데, 탄식이 얼마나 진지하고 현실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오히려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어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밝혀준다.

### 4) 이사야 58장 12절; 61장 4절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 관련 본문들과 표면상 가장 근접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 구절은 이사야 58장 12절과 61장 4절이다.<sup>26</sup> 두 구절은 공통적

24 그러나 10절의 '광야'(מְחֻלָּלָהּ)와 '황폐케 되다'(מְחֻלָּלָהּ)는 느헤미야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11절의 '성전이 불에 타다'(מְחֻלָּלָהּ) 역시 느헤미야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11절의 '거룩한 성전' 역시 느헤미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25 C.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316.  
26 이사야서 내에서 58장 12절과 61장 4절과 비교될 만한 본문은 제20이사야서에 속하는 44장 26절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도 제30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동사 '중건되다'(בָּנֶה)와 '복구시키다'(בָּרַךְ)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황폐하다-מְחֻלָּלָהּ, 도시-יְרוּשָׁלַיִם, 거주하다-בָּשָׁר)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מְחֻלָּלָהּ מְחֻלָּלָהּ)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

으로 구원 선포 양식을 이용하여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화 된 것에 대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옛날의 폐허가 회복될 것이며, 파괴된 성읍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sup>27</sup> 두 구절은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는 문학적으로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28</sup>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다시 세우다'(בנה)의 목적어는 '오래 황폐된 곳들'(מְקוֹמֵי הַחֲרָבוֹת)이다.<sup>29</sup>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느헤미야서에 자주 등장했던 동사 '무너지다'(פָּרַץ)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통사적인 관점에서 두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이사야 58장 12절

네게서 날 자들이<sup>30</sup>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וּבְנוּ מִקְוֵי הַחֲרָבוֹת עוֹלָם)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וּמוֹסְרֵי הַדִּוְרָן תִּקְוִימָ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מְבַרְרֵי הַדָּר)라 할 것이며 길들<sup>31</sup> 수축하여(וּמְשֻׁכְּבֵי הַיָּבוֹשׁ)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וּבְנוּ מִקְוֵי הַחֲרָבוֹת עוֹלָם) 옛부터 무너진 곳

며"(וּלְעַמִּי יִהְיֶה תְּהִינָה וְתִרְבִּינָה יַמְּקוֹמֵיהֶם אֲשֶׁר אֲפִסוּ).

- 27 K. Pauritsch, *Die Neue Gemeinde: Gott Sammelt Ausgestossene und Arme(Jesaja 55-66)*, AnBib 47(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1), 134-137.
- 28 S. Sekine, *Die Tritojesajanische Sammlung(Jes 56-66) redak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erlin: W. de Gruyter, 1989), 127; O. H. Steck, *Studien zu Tritojesaja*, BZAW 203(Berlin: W. de Gruyter, 1991), 203-209.
- 29 '오래와 '황폐된 곳들'이 연결된 문장 구조는 예언자의 위협의 선포에 속하는 예레미야 25장 9절과 49장 13절에만 '영원한 폐허'(מְקוֹמֵי הַחֲרָבוֹת עוֹלָם)로 더 등장하고 있다.
- 30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지닌 이사야 61장 4절에는 '네게서 날 자들이'(מִיָּדְי)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특별한 미래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후대의 삽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 31 마소라 본문에는 복수 명사형 '길들'(מְשֻׁכְּבֵי)로 되어 있는데, BHS는 바로 앞 부분과의 의미상의 평행을 위해 '폐허들'(מְשֻׁכְּבֵי)로 수정 제안하고 있다. '무너진 데'는 '폐허들'을 말하고, '보수하는 자'는 '수축하는 자'와 대칭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폐허들'(מְשֻׁכְּבֵי)은 동사 '파괴하다, 부숴버리다'(פָּרַץ)에서 온 명사형이지만, 구약의 다른 부분에 이 명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וְקוֹמָתָם רָאשֵׁינִים תִּשְׁמָרוּת)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וְהַחֲרָבוֹת יִבְנוּ עָרֵי חָרָב שְׁמָמוֹת דֹּוֹר בְּדֹוֹר)<sup>32</sup>

이사야 58장 12절은 시적인 언어를 통해 오랫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이전에 파괴되었던 기초의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본문에 언급된 2인칭 단수 '너'는 '고레스-다리우스-아닥사스다'로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권위자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야 61장 4절은 이것을 '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닥사스다(Artaxerxes)는 고레스(사 44:26; 45:13)와 다리우스(사 49:8-9)에게 주어졌던 임무, 즉 예루살렘의 오래된 폐허를 복구시키고 과거에 파괴된 도시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보수자 내지는 폐허가 된 길을 수축하여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유다 성읍들의 발전의 주요 업적이 아닥사스다의 지원 덕택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스 4:7-24; 7:1-28; 느 2:1-9).

이사야 61장 4절은 느헤미야서에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성벽의 '완전한 붕괴'라는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12절의 선포를 반복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사 49:8; 60:10). 이 구절은 한발 더 나아가야 웨께서 고레스를 통해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었던 사건을 염두하고 있다(사 44:28; 45:13).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고레스의 칙령을 성취시키는 자이다(스 7:1-28; 참고, 스 1:2-4). 예루살렘 성벽들과 성전의 무너진 돌들은 지나간 한 세기 동안 폐허 속에서도 잘 견디어 주었다.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원과 성벽의 복구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4절의 '대대로'(דֹוֹר בְּדֹוֹר)는 이사야 58장 12절의 '영원

32 제1권 동굴의 이사야서(1QIsa)는 문장 끝에 '그들이 일으킬 것이다'(תִּשְׁמָרוּת)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BHS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의미를 좀 더 명백하게 하고 있다.

히(חָיִי)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 있다.<sup>33</sup> 그 때문에 이사야 58장 12절이 이사야 61장 4절에 문학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가정이 제출되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사야 60-62장이 제3이사야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이사야 61장 4절의 콘텍스트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을 해보도록 하자. 1인칭 화자로 시작되고 있는 이사야 61장 1a, 1ba절은 예언자에게 부가된 위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61장 1bβ-3a절은 예언자 파송의 내용과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61장 3b-7절은 구원의 결과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날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의의 나무들'<sup>35</sup> 혹은 '야웨의 심으신 영광'이라는 종말론적인 이름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3b절). 이것은 해방을 맞이한 자들에게 정부에서 허락하는 새로운 신분과 관련되고 있는데, 백성의 운명의 전환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 덕분이라는 것이다.<sup>36</sup> 이날에 정의는 수립되고, 악은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날은 정치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진실로 이 변화는 찬양과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온 예루살렘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위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4절은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지 않고 구원의 날에 진행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들은<sup>37</sup> 오래

33 W. Lau, *Schriftgelehrte Prophetie in Jes 56-66*, BZAW 225(Berlin: W. de Gruyter, 1994), 79-80, 255-256; K. Koene, *Ethik und Eschatologie im Tritojesajabuch: Eine literarkritische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WMANT 62(Tübingen: Neukirchener Verlag, 1990), 111-112.  
 34 S. Sekine, *Die Tritojesajanische Sammlung(Jes 56-66)*, 127; W. Lau, *Schriftgelehrte Prophetie*, 255. 하지만 K. Koene, *Ethik und Eschatologie*, 112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제3이사야서의 문학 층을 분류하였는데, 이사야 58장 12절이 이사야 61장 4절을 문학적으로 모방한 구절이라고 무조건적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5 히브리어 원어로는 '의의 참나무들'(עֲצֵי הַצְדִּיקָה)이다.  
 36 W. Zimmerli, "Das 'Gnadenjahr des Herrn,'" *Archäologie und Altes Testament*, FS. K. Gallig(Tübingen: J. C. B. Mohr, 1970), 299-319.  
 37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4절이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날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이방의 왕들이 섬길 것이라는 이사야 60장 10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W. Lau, *Schriftgelehrte Prophetie*, 79. 주어의 명시적인 변화는 5절에서야 언급되고 있다. 이사야 61장 3b-7절의 화자는 구원받은 자인데, '외인'과 '이방 사람'(5절)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자들이고, 농업 생산물의 제공자가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7절은 임시적인 결론을 제공하고 있는데, 외인과 이방 사람들이 3인칭 복수형 '그들'로 지칭되고 있다. 그 사이에 언급된 5-6절은 이방인들이 농업 생산물을 공급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2인칭 복수형 '너희는'으로 등장하고 있다. 4-7절은 문학비평적으로 볼 때 통일된 문학적 단일체로 간주될 수 있다.<sup>38</sup> 이사야 61장 4-7절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게 되고 황폐되었던 유다 성읍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사야 44장 26절의 다가오는 구원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4절은 앞뒤의 문맥에 잘 어울려 있고 2개의 주요 동사인 '황폐하다'(חָרַב)와 '무너지다'(נָפַל)'<sup>39</sup>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기대할 만한 개념 정리를 하였으며, 이사야 58장 12절은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과거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의 소개를 특별히 2인칭 단수 '너를 통해'(בְּיָדְךָ) 이루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4절은 "그들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יִבְנוּ)라고 진술하는 반면, 이사야 58장 12절은 '너는 쌓으리다'(יִבְנֶה)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사야 61장 4절은 분명하게 '오래 황폐하였던 곳'과 '옛부터 무너진 곳'이라고 칭하는 반면, 58장 12절은 특별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두 개의 종말론적인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름들은 내용적으로 예루살렘의 재건과 관련된 이사야 61장 3절의 이름(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과는 다르다. 이사야 58장 12절은 이사야 61장 4절의 문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단어들은 유사한 단어로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된다 점을 선포하고 있다: O. H. Steck, *Studien zu Tritojesaja*, 122-123.

38 K. Koene, *Ethik und Eschatologie*, 103-115.

39 이 단어는 심판과 구원의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레위기 26장 31f, 34f, 43절; 역대하 36장 21절; 시편 69편 26절; 79편 7절; 이사야 33장 8절; 49장 8, 19절; 54장 3절; 에레미야 10장 25절; 12장 11절; 18장 16절; 33장 10절; 50장 45절; 에스겔 6장 4절; 25장 3절; 29장 12절; 30장 7, 12, 14절; 32장 15절; 33장 28절; 35장 12, 15절; 36장 3f, 34-36절; 다니엘 9장 17f, 26f절; 11장 31절; 호세아 2장 14절; 요엘 1장 17절; 아모스 7장 9절; 9장 14절; 미가 6장 13절; 스바냐 3장 6절; 스가랴 7장 14절.

있다. 두 본문의 주요 단어들을 비교해보자.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세우다(בָּנִי)ᵃ	그들은 세우다(בָּנִי)
황폐된 곳들(חֲרָבִים)	황폐하였던 곳들(חֲרָבִים)
오래(עָדָם)	오래(עָדָם)
파괴된 기초(בְּיָסוּד)	무너진 곳(חֲרָבִים)
역대의(בְּיָמֵינוּ)	대대로(בְּיָמֵינוּ)
너는 쌓으리다(בְּבָנֶיךָ)	다시 일으키다(בְּבָנֶיךָ)
보수하는 자(בְּנֵי)	증수하다(בְּנֵי)
수축하다(בְּנֵי)	
무너진 곳(בְּנֵי)	
거할 곳(בְּנֵי)	성읍들(בְּנֵי)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사야 58장 12절과 61장 4절은 동일한 단어 내지는 유사한 단어를 통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도성의 회복과 복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느헤미야 본문들을 기억나게 한다. 물론 느헤미야 본문과 언어 사용에서 차이점도 있다. 느헤미야 본문은 성벽건축과 관련해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성벽을 쌓다’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헐었다’(חָרַב)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sup>40</sup> 느헤미야는 파괴된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 보도할 때 ‘황폐하다’(חָרַב)를 사용하였지만(느 2:3, 7), 도시를 ‘새롭게 하다’(בָּנִי)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문 비교를 근거로 제3이사야서 본문들이 느헤미야 본문들과 전통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 5) 이사야 58장 12절의 전통사적 위치

40 비교. 예언자 예레미야는 기원전 587년의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와 관련해서 철저히 ‘헐었다’(חָרַב)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다(렘 39:8; 52:4). 예레미야서에서 ‘헐었다’(חָרַב)의 반대개념으로는 ‘세웠다’(בָּנִי)가 등장하고 있다(렘 1:10; 18:7, 9; 31:28).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 58장은 머리말(1-2절), 금식에 대한 비판적 말씀(3-4절), 금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5-12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5-7, 9b-10a절이 구원을 위한 특별한 조건들(주로 사회적 불공평의 제거)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8-9a, 10b-12절은 구원의 시간 그 자체를 진술하고 있다. 10b절은 8절로부터 빛의 비유를 수용하여 재진술하였고, 11절은 계속해서 비유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12절은 일체의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황폐된 것의 복구(회복)를 설명하며 내용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다. 12절은 일련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 구절로 주변의 문맥 속에 특별히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sup>41</sup> 그 이외에도 13-14절은 부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언어유희로 12절의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בְּנֵי)라는 단어를 받아 새로운 주제인 안식일(שַׁבָּת) 규정을 첨부하고 있다.<sup>42</sup>

이사야 58장 12절은 무엇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황폐된 곳들’(חֲרָבִים)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בָּנִי)라는 선언은 포로기나 포로 후기의 구원 예언의 주요 주제이다. 이사야 44장 26절과 에스겔 36장 10, 33-34절은 미래에 사람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황폐한 것들이 경작되고 건축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본문들과 이사야 58장 12절이 상응하는 내용은 회복과 재건의 대상으로 ‘도시들’ 내지는 ‘유다의 도시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들’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심판의 말씀들과 관련된 문맥에서 서로 다른 청중들에게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다.<sup>43</sup> ‘도시’(עָרִים)와 ‘황폐하게 되다’(חָרַב)라는 두 단어는 구원의 선포에서도 함께 등장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사 61:4; 렘 33:10-12; 겔 36:35, 38). 중요한 것은 파괴나 회복을 취급하는 예언서 본문

41 그런 이유로 12절 다음에는 61장 4절이 와야 한다는 가정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K. Koenen, *Ethik und Eschatologie*, 112는 12절이 문맥에 잘 어울린다고 보고 있다.

42 13-14절이 부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K. Koenen, *Ethik und Eschatologie*, 88-91.

43 ‘도시’(עָרִים)는 ‘황폐하게 된다’(חָרַב)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렘 26:9; 49:13; 겔 6:6; 12:20; 26:19; 29:12; 30:7; 습 3:6).

에서 '거주하다'(גור)라는 주제가 의미심장할 정도로 반복하여 등장한다는 점이다.<sup>44</sup> 이사야 58장 12절의 대의(大意)는 '도시들은 파괴되었으나(심판)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구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사야 58장 12절의 의미는 분명하다. "심판이 있은 후에 파괴되었던 유다의 도시들은 다시 건축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 시대의 표징인 것이다."

이사야 58장 12절과 느헤미야 본문들(1:3; 2:13; 4:3, 7; 6:1)과의 차이점도 주목할만하다. 느헤미야 본문들에서는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듯하다.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상태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라는 호소에 이르렀지만(느 2:17),<sup>45</sup> '거주지'의 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더구나 이사야 58장 12절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파괴된 기초'(בְּסוּדָה)와 '쌓다'(בָּנָה)라는 두 개념의 결합은 구약성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합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מִיָּמֵינוּ)을 다시 일으킬 것"(사 61:4)이라는 선언과는 구별되고 있다. 전자는 '파괴된 근본 또는 기초'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옛부터 '무너져 있던 곳'을 지칭한다. 후자의 단어는 심판과 구원의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와는 달리 '파괴된 기초들'(בְּסוּדָה)은 분명히 '토대, 근본,' 즉 가장 기초적인 하부구조를 의미한다.<sup>47</sup> 이 단어의 특별한 선택은 주택들

44 이사야 44장 26절; 58장 12절; 예레미야 26장 9절; 33장 10절; 에스겔 6장 6절; 12장 20절; 26장 19절; 36장 35절; 38장 8절; 스바냐 3장 6절; 학개 1장 4절. 더 나아가 이사야 54장 3절과 아모스 9장 14절은 단어의 영역을 확대시켜 '도시'(עיר)-거주하다(גור)-황폐하다(סוּדָה)는 세 단어를 결합시키고 있다.

45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성벽 건축의 이유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겔 36:15, 30)을 기억나게 한다.

46 하지만 느헤미야 11장 1-4, 6절에서는 '거주'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느헤미야서의 최종 편집과정에서 '재건'과 '거주'라는 두 개의 주제가 추가적인 방법으로 서로 결합되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살펴볼 때 두 주제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예언서 본문에서처럼 '황폐케되다(סוּדָה)-도시(עיר)-거주하다(גור)'가 그때마다 같은 절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서로는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47 이와는 달리 W. Lau, *Schriftgelehrte Prophetie*, 256는 '파괴된 기초들'(בְּסוּדָה)을 이사야 58장 12절의 '황폐된 곳들'(מִיָּמֵינוּ)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잔해, 폐허'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해석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파괴된 기

이나 성전의 토대(주춧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벽의 토대를 생각나게 하지는 않는다. 욥기 4장 19절, 에스겔 13장 14절, 하박국 3장 14절에서 이 단어(בְּסוּדָה)는 집들의 기초(주춧돌)를 지칭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성전의 기초를 말하고 있다.<sup>48</sup>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성벽의 기초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sup>49</sup>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12a절의 '황폐된 곳들'(מִיָּמֵינוּ)을 세운다는 것은 파괴된 도시와 주택들의 재건을 말하고 있으며, 58장 12aβ절의 '파괴된 기초들'(בְּסוּדָה)을 쌓는다는 것은 성전 재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50</sup>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너'로 지칭되는 자에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두 개의 별칭이 부가되고 있다. 첫 번째 어법만이 느헤미야 본문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무너지다'(פָּרַס)라는 단어는 여러 문맥에서 '울타리(גָּרָה)/벽(הַגָּרָה)'<sup>51</sup> 혹은 '성벽(הַמִּצֵּד)'<sup>52</sup>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용례는 철저히 서로 다른 신학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후자는 느헤미야서와 다른 많은 본문에서처럼<sup>53</sup> 성벽을 가리키는 반면, 전자는 일반적으로 포도원이나 경작지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 쌓

초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런 해석은 이사야 58장 12절과 61장 4절이 서로 다르게 사용한 언어상의 차이점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48 열왕기상 6장 37절; 역대하 3장 3절; 24장 27절; 에스라 3장 6, 10, 11, 12절; 이사야 14장 32절(시온); 28장 16절(시온); 학개 2장 18절; 스가랴 4장 9절; 8장 9절.

49 참고, R. Mosis, Art. "yāsād,"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I (Michigan: Eerdmans, 1982), 109-121은 이사야 58장 12절의 '기초들'(בְּסוּדָה)을 건물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아직 남아 있는 잔해를 생각하고 있다. 시편 137편 7절과 미가 1장 6절에서는 '기초'가 물론 분명한 관계가 불명확하지만, 성벽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따르면, 성문을 포함한 성벽이 (여리고) 성의 '기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50 Th. Podella, *Sôm-Fasten: Kollektive Trauer um den verborgenen Gott im Alten Testament*(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222도 역시 이사야 58장 12절이 두 가지 주제, 즉 예루살렘 폐허를 재건하는 주제와 성전 기초를 쌓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51 이사야 5장 5절; 에스겔 13장 5절; 22장 30절; 아모스 9장 11절; 시편 80편 13절; 89편 41절; 전도서 10장 8절.

52 열왕기하 14장 13절; 역대하 25장 23절; 26장 6절; 32장 5절; 이사야 30장 13절; 잠언 25장 28절.

53 레위기 25장 29, 31절; 신명기 28장 52절; 여호수아 6장 20절; 사무엘하 11장 20, 21절; 열왕기하 14장 13절; 25장 10절; 이사야 26장 1절; 60장 10, 18절; 62장 6절; 예레미야 1장 15절; 15장 20절; 21장 4절; 에스겔 26장 10절; 요엘 2장 9절.

은 담이나 울타리 혹은 가축을 가두는 우리를 의미한다.<sup>54</sup> 그런데 시편 89편 40절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모든 울타리(חַגְרֵי)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מִצְדָּוָתָא)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여기서 ‘울타리’는 시적으로 사용된 문맥에서 단순히 낮은 벽을 말하지 않고, ‘성벽’(מִצְדָּוָתָ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요새’와 대비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언서 본문에서도 ‘울타리’(חַגְרֵי)가 때때로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되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사 5:5; 겔 13:5; 22:30; 암 9:11; 미 7:11). ‘무너지다’(נָפַל)라는 단어는 여러 문맥에서 발견되고 있다. 역사서에서는 정복과 관련하여 성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남 왕국의 왕 아파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מִצְדָּוָתָא)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נָפַל, 왕하 14:13// 대하 25:23). 웃시야는 블레셋과 싸운 후에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נָפַ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대하 26:6). 더 나아가 ‘무너지다’(נָפַל)라는 단어는 반드시 전쟁과 관련되지 않을지라도 무너진 건축물을 보수하거나 건축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무너졌던(נָפַל) 성읍을 수축하였고(왕상 11:27),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מִצְדָּוָתָא מְנֻבָּלָה)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מִצְדָּוָתָא חֲצוֹנָה)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대하 32:5). 다른 본문들도 이 단어의 용법을 잘 알고 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무너진 도시’(מִצְדָּוָתָא נְעִירָה)와 같다(잠 25:28). 잠언 3장 3절에서 ‘헐다’(נָפַל)는 ‘세우다’(בָּנָה)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사야 30장 13절은 은유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무너지려고 터진 담’(מִצְדָּוָתָא נֹפֶלֶת לְפָנָיו)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사야 5장 5절은 ‘담을 헐어버림’(נָפַל מִצְדָּוָתָ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하고 있다(참고. 시 80:12; 89:40). ‘성이 무너진 곳’(מִצְדָּוָתָא נְעִירָה)은 예

54 민수기 22장 24절: 32장 16, 24, 36절; 시편 80편 12절; 89편 40절; 잠언 24장 31절; 이사야 5장 5절; 스바냐 2장 6절.

언자의 심판 선포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암 4:3), 예언자는 전쟁의 파괴를 상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통해 죄와 심판 사이의 내적인 관련성을 시적인 차원에서 유효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다.<sup>55</sup>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성 무너진 곳들’(מִצְדָּוָתָא נְעִירָה)에 올라가지도 않고, 여호와와 함께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은 채 거짓 평화만을 외치는 자라고 비판하고 있다(겔 13:5; 참고. 겔 22:30). 여기서 ‘성 무너진 곳들’<sup>56</sup>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거짓 예언자들은 진정한 여호와와 함께 임할 심각한 파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아도취에 빠져 성벽의 갈라진 틈 위에 석회를 바르는 자이다(겔 13:10).<sup>57</sup> ‘성 무너진 곳들’은 앗시리아와 바벨론 군대의 주된 화력 무기였던 공성퇴(battering rams)로 인한 파괴를 연상시키고 있는데, 군사들은 이 무기를 전쟁 상대국의 성벽을 향해 쏘아 올린 경사로 위로 돌진시켜 덜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였다.<sup>58</sup>

이사야 58장 12b절은 두 개의 종말론적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미래를 선포하고 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는 심판으로 무너진 곳에 다시 성벽을 쌓고, 성읍은 전쟁과 정복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보호를 받고, 심판의 무서운 경험과는 달리 편안하게 거주할 공간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에서 언급된 ‘무너지다’(נָפַל)라는 모티브와의 각각의 전통사적인 접촉점을 확인할 수 있다.

55 J. Jeremias, *Der Prophet Amos*. ATD 24,2(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45-46.

56 C. H. Cornill, *Das Buch des Propheten Ezechiel*(Leipzig: Nirrichs, 1886), 247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 22장 30절과 시편 106편 23절과 비교하여 복수형 ‘성 무너진 곳들’(מִצְדָּוָתָא נְעִירָה) 대신에 단수형인 ‘성 무너진 곳’(מִצְדָּוָתָא)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 복수형 어미 ‘הי’는 중복 오사로 간주된다: R. Kraetzschmar, *Das Buch Ezechiel*. HKAT(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131-132.

57 A. J. Everson, “The Days of Yahweh,” *JBL* 93(1974), 329-337.

58 Y. Yadin,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New York: McGraw-Hill, 1963), 422-425.

#### 4. 다른 예언서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와 복구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포로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종말론적인 예언서 본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본문이 제시될 수 있다.

##### 1) 아모스 9장 11-15절

벨하우젠(J. Wellhausen)이 아모스 9장 11-15절에 대해 “괴와 철 대신에 장미와 라벤더 향”(Rosen und Lavendel statt Blut und Eisen)<sup>59</sup>이 가득한 본문이라고 지적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포로 후기 최종 편집자에게 돌리고 있다.<sup>60</sup> 아모스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희망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스 9장 11절은 회복 가능한 찬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וְהִסְתִּים אֶת-רֵיבֹתֵיהֶם)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וְעָשִׂיתִּי) 옛적과 같이 세우  
고(וְהָיָה כִּימֵי עוֹלָם)

59 J. Wellhausen, *Die kleinen Propheten*(Berlin: Verlag J. Guttentag, 1963<sup>3</sup>), 96.

60 H. W. Wolff,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 XIV/2(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5<sup>3</sup>), 403-410; J. L. Mays, *Amos: A Commentary*. OTL(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163-165; T. S. Hadjiev,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121-122; 참고.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제7집(1999), 69-90는 아모스 7-9장을 1-6장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문학단위로 간주하고, 1-6장에서 선포된 예언들의 신빙성을 견고하게 하려는 후대의 부록(appendix)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모스서가 문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명기사가 편집 작업을 거쳐 이차적 본문들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최중원, “아모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3권 4호(통권 66집)(2017년 12월), 119-149; W. H. Schmidt,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n Propheten und seinen Sammler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1965), 168-193; S. Grätz,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ßFluchs im Alten Orient und Alten testament*. BBB 114(Bodenheim: Philo Verlag, 1998), 252ff.; J. Wöhrle,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134-135.

이 구절은 아모스서 전체를 위한 두 개의 짧막한 결론 부분(11-12절; 13-15절)을 이끌고 있다. ‘그날에’(וַיְהִי בַּיּוֹם)라는 도입 구절은 구원에 관한 예언을 이끌고 있는데, 아모스서의 결론 부분이 종말론적 본문으로 정렬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11절은 단수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과 복구가 하나님의 구원 선포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폐허 또는 틈’(רֵיבֹת)로 명명한 것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오직 여기서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포로 후기 예루살렘의 폐허 상태와 관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1</sup> ‘다윗의 장막’이 통일 왕국 시대의 거대한 다윗의 제국이나 패망한 남 왕국 혹은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다윗 장막의 회복’은 제3이사야 본문들에서처럼 예루살렘 도시와 성벽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sup>62</sup> 이러한 구원의 신탁은 15절에서 자연 세계에서 차용한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땅에 심으면 뽑히지 않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은 예레미야의 신탁과 관련되고 있음에 분명하다(렘 1:10; 24:6).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땅에 심으면, 다시는 그곳에서 뽑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이다.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아모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심판에 관한 신탁을 전제할 때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모스 9장 11절과 이사야 58장 12절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구약성서 전체에서 여기 두 곳에서만 ‘막다’(סָתַם)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틈’(רֵיבֹת)이라는 명사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63</sup>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에 언급된 ‘일으키다’(עָשִׂיתִּי), ‘세우다’(בָּנִיתִּי), ‘오랫동안’(עוֹלָם)과 같은 주제어는 이사야 58장 12절과 이사야 61장 4절과 매우 근접한 주제상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어느

61 H. W. Wolff,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407.

62 A. Weiser, *Die Propheten Hosea, Joel, Amos, Obadja, Jona, Micha*. ATD 24(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204.

63 반대로 ‘힐다’(חָלַד)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담’(דָּמ)이라는 명사가 제시된 곳도 있다(사 5:5; 시 80:12; 전 10:8).

본문이든 다른 본문에 대한 문학적 모방 내지는 인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문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너지다(יָרַע)-막다(כָּסָה)’라는 단어의 결합은 포로 후기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원에 대한 소망의 표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두 단어의 결합이 느헤미야서에서는 회피되었다는 점이다. 느헤미야가 의식적으로 아모스서 결론 부분과 제3이사야서 본문과 관련된 예언자적 범주의 전통 안에서 있기를 원했다면, 쉬운 방법으로 ‘무너지다(יָרַע)-막다(כָּסָה)’의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결합시키고 도시의 부흥을 ‘무너진 성벽의 건축’으로 서술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결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 예언서 본문들이 대략적으로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거나,<sup>64</sup> 느헤미야가 조금 일찍 활동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sup>65</sup> 두 개의 함축적인 단어 사용에 근거하여 다양한 전승의 담지자들이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르게 가공한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도 있다.

아모스 9장 11절의 종말론적인 도입구는 12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2절은 예언의 종결 양식 문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1-12절의 구원의 예언은 다윗 왕조의 회복과 예돔의 남은 자들의 획득에 대해 약속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증거야말로 남 왕국 역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에 예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행동(욥 1:10-11)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11-12절은 종말론적인 구원 사상과 민족주의적 소망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13절)는 두 번째의 짧은 단락을 이끌고 있는데, 15절까지 이르고 있다. 11-12절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도입구

64 D. U. Rottzoll,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Berlin: de Gruyter, 1996), 279는 아모스서 결론 부분의 탄생 연대를 남 유다가 망한 기원전 587년에서 느헤미야의 활동이 끝나는 430년 사이로 추측한다. H. W. Wolff,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406은 정확한 연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대략 기원전 5세기로 잡았다.

65 Ch. Levin, “Das Amosbuch der Anawim,” *ZThK* 94(1997), 407-436.

인데, 이 두 번째 구원의 신탁은 하나의 독립된 예언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앞의 예언과는 다른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황폐화된 자연이 풍요로운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써의 구원의 징표는 종말론적인 선포에 자주 등장한다(사 41:18-19; 51:3; 55:12-13; 욥 3:18).<sup>66</sup> 14절은 구원의 결과를 설명하는 무조건적인 축복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을 건축하여(בָּנְיָם בְּיָמָי וּבְיָמָי) 거주하며(יָגוּרְוּ)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  
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상태에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1인칭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대전환은 자연 사건의 위대한 변화와 결부되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과 귀환, 땅의 소유, 황폐한 도시들의 건축과 거주, 포도원과 과수원 같은 농업의 활성화 및 생산 등의 평화로운 삶이 약속되고 있다. 이제 자연의 복된 질서가 파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14절은 제3이사야서의 본문들(사 58:12; 61:4)과 확실한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세우다(בָּנְיָם), 도시(בְּיָמָי), 부서지다(בְּיָמָי), 거주하다(יָגוּרְוּ)’와 같은 주요 단어들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15절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14절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14절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서 ‘심다, 가꾸다’(כָּסָה)라는 동사를 받아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어’(14절) 다

66 물론 구원에 관한 종말론적 사고는 종교사적으로 볼 때 철저히 신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약성서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미래에 펼쳐지는 종말론적 자연현상은 오직 아웨의 무제한적인 힘과 위대함, 그리고 놀라운 창조력에 의한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다.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모든 현상들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아웨 하나님의 의도적인 구원 활동으로 해석되고, 그분의 광활한 자비와 은혜의 현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시는 그 땅으로부터 ‘뿔히지’(15절) 않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되고 신학화된 단어들은 우선 예레미야의 여러 본문들(렘 1:10; 24:6; 31:28; 42:10; 45:4)을 기억나게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야 58장 12절과의 유사성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 58장 12절은 ‘뿔다’(צַר)라는 단어 대신에 ‘파괴하다’(פָּרַד)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강조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느헤미야 본문은 거주할 도시를 복구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본문은 ‘건축하다’(בָּנָה)와 관련된 은유적인 어법에 해당되는 ‘심다’ 혹은 ‘뿔다’와 같은 단어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

## 2) 미가 7장 11절

11절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בַּיּוֹם יִבְנֶה אֱלֹהִים מִצְרָתַי)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한편의 시편을 연상시키는 미가서의 결론 부분(7:8-20)<sup>67</sup>에서 11-13절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후대에 추가적으로 삽입된 구절로 평가된다.<sup>68</sup> 8-10절은 철저하게 1인칭 형식으로 구성된 신뢰시이다. 그리고 14-17절은 민족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야웨를 향한 간절한 청원을 노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원수들을 징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이다. 18-20절은 분명하게 공동체의 찬양시로 옛 언약에 신실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시편의 형식으로 구성된 부분들과 11-13절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sup>69</sup>과 지경의 확장, 앗시리아와 이집트에서 포로들의 귀환, 그리고 원수들 땅의 폐허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11-13절에 들어 있는 단어들도 앞뒤의 문맥들과 전혀 연결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11-13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3번에 걸쳐 등장하는 ‘날’(יּוֹם)이라는 단어이다(11a, 11b, 12a 절). 좀 더 깊이 문장론적으로 살펴보면, ‘날’을 통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문장들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1-13절이 9-10절에 대한 일종의 해설로 미가서 탄생의 가장 최종 단계에서 삽입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sup>70</sup>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날’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시간으로 서술되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야웨의 구원 행동의 외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1b절은 성벽이 재건되는 그 ‘날’에는 도시의 ‘지경’도 넓혀질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미가 7장 11절은 전통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61장 4절, 아모스 9장 11, 14절과 동일 선상에서 있다. 어쨌든 포로 후기에 탄생된 아모스서의 결론 부분과 미가서의 결론 부분은 각각 분명히 예루살렘(유다)의 재건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가 7장 11절은 언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느헤미야 본문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건축하다’(בָּנָה)라는 주제를 하나만을 사용하여 느헤미야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한 표상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67 M. L. Barre, "A Cuneiform Parallel to Ps 86:16-17 and Mic 7:16-17," *JBL* 101(1982), 271-275.

68 J. T. Willis, "A Reapplied Prophetic Hope Oracle," *Studies on Prophecy*. VTSup(1974), 64-76; H. W. Wolff, *Dodekapropheton 4: Micha*. BK XIV/4(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190-191.

69 O. Eissfeldt, "Ein Psalm aus Nord-Israel. Mica 7,7-20," *ZDMG* 112(1962), 259-268; B. Reicke, "Liturgical Traditions in Micah 7," *HTR* 60(1967), 349-367은 14절에 갈멜, 바산, 길르앗과 같은 이스라엘 북쪽의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1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도시는 사마리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1절에서 말하는 성벽의 재건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일 필요는 전혀 없다.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갈멜, 바산, 길르앗은 북쪽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의 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포로 후기 예언서에서 성벽의 재건은 당연히 항상 예루살렘과 관련되고 있다.

70 H. W. Wolff, *Dodekapropheton 4: Micha*, 198-199.

## 5. 나가는 말

포로 후기 시대에 탄생된 느헤미야서와 여러 예언서 본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에 대해 매우 다양한 단어들과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언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벽의 재건에 대해 특징적인 다른 단어들을 통해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공통적인 단어들을 활용하여 황폐화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것이며, 파괴된 성읍들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 예루살렘 도시 성벽의 재건, 특히 파괴된 성벽의 '틈'의 복구는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 시기의 징표라고 선포되었다. 우리는 본문 비교를 통해 제3이사야서의 본문들과 포로 후기 최종 편집자에게 소급되는 아모스와 미가의 종말론적 본문들-매우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은 느헤미야 본문들과 밀접한 전통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느헤미야 1장 3절, 2장 13절, 4장 3, 7절, 6장 1절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붕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섯 구절 모두 히브리어 동사 '무너지다'( $\text{נָפַל}$ )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와 성벽의 복구라는 주제는 포로 후기 예언 문헌에 속하는 제3이사야서의 여러 본문들(사 58:12; 60:10-11, 18; 61:4; 62:6-12; 64:9-11)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매우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예루살렘의 폐허는 옛 시대의 상징이고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는 새 시대의 상징으로 선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주제는 아모스 9장 11-15절과 미가 7장 11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 관련 본문들과 표면상 가장 근접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 구절은 이사야 58장 12절과 61장 4절이다. 두 구절은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는 문학적으로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구원 선포 양식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된 것에 대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옛날의 폐허가

회복될 것이며, 파괴된 성읍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 $\text{נָפַל}$ )와 재건( $\text{בָּנִי}$ )'이라는 모티브와의 전통사적인 접촉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모스 9장 11절과 이사야 58장 12절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구약성서 전체에서 여기 두 곳에서만 '막다'( $\text{סָדַד}$ )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틈'( $\text{נֶחֱס}$ )이라는 명사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에 언급된 '일으키다'( $\text{בָּנִי}$ ), '세우다'( $\text{בָּנִי}$ ), '오랫동안'( $\text{עָדָם}$ )과 같은 주제어는 이사야 58장 12절과 이사야 61장 4절과 매우 근접한 주제상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미가 7장 11절은 예루살렘(유다)의 재건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적으로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61장 4절, 아모스 9장 11, 14절과 동일 선상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공통의 신학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모티브의 전송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새롭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즉 느헤미야는 신학적으로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제3이사야 같은 예언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는 제사장 집단이나 레위계 집단과 관련된<sup>71</sup> 것이 아니라 예언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서술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역사 서술에서 예언적 척도와 관점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느헤미야 활동의 토대는 예언자적 소명이었기 때문이다.

## 6. 참고문헌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제16권 4호(통권 38집)(2010년 12월), 33-53.

마이어스, J. M.,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에스라·느헤미야」(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제17집

71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제17집(2005년 4월), 78-100.

(2005년 4월), 78-100.

민경진, “느헤미야 13장, 세 질문으로 다시 읽기,” 『구약논단』 제24권 2호(통권 68집)(2018년 6월), 37-61.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제22권 1호(통권 59집)(2016년 3월), 125-156.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86(2013), 5-29.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4(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제7집(1999), 69-90.

최종원, “아모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3권 4호(통권 66집)(2017년 12월), 119-149.

Barre, M. L., “A Cuneiform Parallel to Ps 86:16-17 and Mic 7:16-17,” *JBL* 101(1982), 271-275.

Bauer, J. B., “Der ‘Fuchs’ Neh 3,35 ein Belagerungsturm?” *BZ N.F.* 19(1975), 97-98.

Blenkinsopp, J., *Ezra-Nehemiah*. Old Testament Library(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Conrad, J., “פֶּרֶץ”, in: *TDOT* XII(2003), 104-114.

Cornill, C. H., *Das Buch des Propheten Ezechiel*(Leipzig: Nirrichs, 1886).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1*, GAT 4/1(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2).

Eissfeldt, O., “Ein Psalm aus Nord-Israel. Mica 7,7-20,” *ZDMG* 112(1962), 259-268.

Everson, A. J., “The Days of Yahweh,” *JBL* 93(1974), 329-337.

Grätz, S.,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ßFluchs im Alten Orient und Alten testament*. BBB 114(Bodenheim: Philo Verlag, 1998).

Hadjiev, T. S.,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Jeremias, J., *Der Prophet Amos*. ATD 24,2(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Koene, K., *Ethik und Eschatologie im Tritojesajabuch: Eine literarkritische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WMANT 62(Tübingen: Neukirchener Verlag, 1990).

Kraetzschmar, R., *Das Buch Ezechiel*. HKAT(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Kutscher, E. Y., “Two ‘passive’ constructions in Aramaic in the light of Persian,” in: *Hebrew and Aramaic Studies*(Jerusalem: Magnes Press, 1977), 70-89.

Lau, W., *Schriftgelehrte Prophetie in Jes 56-66*, BZAW 225(Berlin: W. de Gruyter, 1994).

Levin, Ch., “Das Amosbuch der Anawim,” *ZThK* 94(1997), 407-436.

Mays, J. L., *Amos: A Commentary*. OTL(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Morgenstern, J., “Is 63,7-14,” *HUCA* 23(1950), 187-203.

Mosis, R., Art. “yāsād,”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I(Michigan: Eerdmans, 1982), 109-121.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Chicago: University Press, 1948).

Pauritsch, K., *Die Neue Gemeinde: Gott Sammelt Ausgestossene und Arme(Jesaja 55-66)*, AnBib 47(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1).

Podella, Th., *Sôm-Fasten: Kollektive Trauer um den verborgenen Gott im Alten Testament*(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Reicke, B., "Liturgical Traditions in Micah 7," *HTR* 60(1967), 349-367.
- Rottzoll, D. U.,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Berlin: de Gruyter, 1996).
- Saley, R. J., "The Date of Nehemiah Reconsidered," *Biblical and Near Eastern Studies. Essays in Honor of William Sanford LaSor*, ed. G. A. Tuttle(Grand Rapids: Eerdmans, 1978), 151-165.
- Schmidt, W. H.,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n Propheten und seinen Sammler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1965), 168-193.
- Sekine, S., *Die Tritojesanische Sammlung(Jes 56-66) redak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erlin: W. de Gruyter, 1989).
- Selms, A. van, "The Origin of the Name Tyropoeon in Jerusalem," *ZAW* 91(1979), 170-176.
- Steck, O. H., *Studien zu Tritojesaja*, BZAW 203(Berlin: W. de Gruyter, 1991).
- Steck, O. H.,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sup>14</sup>).
- Watts, J. D. W., *Isaiah 34-66*, WBC 25(Waco, Texas: Word Books, 1987).
- Weiser, A., *Die Propheten Hosea, Joel, Amos, Obadja, Jona, Micha*. ATD 24(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Wellhausen, J., *Die kleinen Propheten*(Berlin: Verlag J. Guttentag, 1963<sup>4</sup>).
- Welten, P., "Kulthöhe und Jahwetempel," *ZDPV* 88(1972), 19-37.
- Westermann, C.,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19(Göttingen und Zürich; Vandenhoeck & Ruprecht, 1986).
- Whybray, R. N., *Isaiah 40-66*(NCBC Grand Rapids: Eerdmans, 1975).
- Williamson, H. G. M., "Nehemiah's Wall Revisited," *PEQ* 116(1984), 81-88.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16(Waco, Texas: Word Books, 1985).
- Willis, J. T., "A Reapplied Prophetic Hope Oracle," *Studies on Prophecy*. VTSup(1974), 64-76.
- Wolff, H. W.,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 XIV/2(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5<sup>3</sup>).
- Wolff, H. W., *Dodekapropheten 4: Micha*. BK XIV/4(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 Wöhrle, J.,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 Yadin, Y.,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New York: McGraw-Hill, 1963).
- Zimmerli, W., "Das 'Gnadenjahr des Herrn'," *Archäologie und Altes Testament*. FS. K. Galling(Tübingen: J. C. B. Mohr, 1970), 299-319.

## 검색어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와 복구

포로 후기 예언 문헌

전통사 연구

느헤미야

제3이사야

장미와 라벤더 향

# A Study on 'the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in the Proclamations of Nehemiah and Post-Exilic Prophets

Hee-Hak Lee, Dr.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After returning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the prophets proclaimed the restoration of Israel as the restoration of the wall of Jerusalem, based on the profound religious meaning of Jerusalem. The restoration of the wall of Jerusalem was regarded as a religious symbol of Israel's restor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from a tradition-historical perspective the messages proclaimed by Nehemiah and post-exilic prophets on the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The theme of the ruins of Jerusalem's walls and the restoration of the walls appears in the various texts of the Third Isaiah also, which is evaluated to belong to the post-exilic prophetic literature (Isa 58:12; 60:10-11, 18; 61:4; 62:6-12; 64:9-11). By using various

terms, they proclaim that the ruins of Jerusalem is a symbol of the old age, and that the restoration of the walls is a symbol of the new age.

The passages that are shown to be the closest in terms of contents to Nehemiah's tex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are Isaiah 58:12 and 61:4. There is no way to deny that the two passages show a close literary interrelationship in that they are almost identical sentences. We can see here the motif and tradition-historical contact points of the 'destruction (#rp) and reconstruction (hnb) of the walls of Jerusalem' which are mentioned in Nehemiah.

The prophecy of Jerusalem's judgment and restoration is also found in the several apocalyptic prophetic texts (Amos 9:11-15; Micah 7:11), which are viewed as additions during the post-exilic period. One thing in common in Amos 9:11 and Isaiah 58:12 is that the Hebrew noun #rP, ('breach') is suggested as the object of the Hebrew verb rdg ('wall up') only in these two place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Moreover, the thematic words, such as 'set up' (-wq), 'build' (hnb), and 'old' (-l'A), mentioned in Amos 9:11 suggest very similar commonality to Isaiah 58:12 and 61:4. From a tradition-historical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Micah 7:11 is on the same line with Isaiah 58:12, 61:4, and Amos 9:11, 14 in that Micah 7:11 strongly expects the restoration of Jerusalem (Judah).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Book of Nehemiah and the various prophetic texts, which were born in the post-exilic period, utilize a wide variety of words and motifs in regard to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restoration of the crumbled walls of Jerusalem. To restore the walls of the city of Jerusalem, especially concerning the "breaches" of the destroyed walls, was declared as a sign of a new beginning period of salvation. I demonstrated through textual comparisons that the texts of the trito-Isaiah and the apocalyptic texts of Amos and Micah, which are attributed to the final editors of the post-exilic period, even though they are in very original and characteristic forms, are tradition-historically closely related to the texts of Nehemiah.

## Keywords

the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post-exilic prophetic texts

tradition criticism

Nehemiah

the trito-Isaiah

roses and lavenders

- 투고일: 2020년 7월 13일
- 심사일: 2020년 7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7월 28일

[www.kci.go.kr](http://www.kci.go.kr)